월요광장

콘텐츠로 넓어지는 대한민국 영토

송 성 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전 세계 주요 24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기업 주재원과 한인 사업가 637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류 인기도 및 마케팅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가 '한류 인기가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된다'또는 '많이 된다'고 답했다. 이렇듯 한류 콘텐츠의 해외 확산은 우리 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류는 속도와 방향을 가진 흐름이다. 우리 콘텐츠의 품질과 소비 트렌드, 감성의 변화 뿐 아니라 현지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한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이야기한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류의 인기가 '높아졌다'또는 '많이 높아졌다'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3년 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이는 외교부에서 최근 발표한 한류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 전 세계 14개국 성인 남녀 56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와 중국·인도네시아가 각각 1위(72.7%)와 2위(66.1%), 3위(57.1%)를 차지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14.3%만이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지난 10년 사이 우리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배가량, 수출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을 이어 오던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가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2011년에 13.2%로 정점을 찍었던 성장률은 지난해에는 3.4%에 그쳤다. 신규 수요는 포화 상태이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세계 콘텐츠 산업 성장률 4.8%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 자못 아쉽기만 하다. 중국에서 한류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한류 콘텐츠의 진입을 막는 중국 정부의 장벽 또한 두터워지고 있다. 또 눈에 띄는 히트작이 부족해 한류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콘텐츠인사이트'에 참석한 중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한국이 콘텐츠로 다시 성공하려면 기존에 해 온 방법을 다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레드오션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콘텐츠 산업은 태생적으로 내수시장이 아니라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하는 확장의 숙명을 안고 있다.

큰 시장이 있는 곳, 우리에게 호의적인 곳을 거점으로 확보해 다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국의 충칭이나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들이 다 집중하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삼천만 명의 인구를 지닌 중국 내륙의 중심, 충칭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시장이다. 또한 2억5000만 명의 세계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동남아시아의 허브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콘텐츠 산업이라는 이름의 배를 이끌고 갈 방향키는 바로 융합이다.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융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콘텐츠 장르와 비즈니스, 나아가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콘텐츠와 콘텐츠, 콘텐츠와 플랫폼, 콘텐츠와 타 산업이 합해져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

어느 시인은 '모든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이야기했지만, 콘텐츠 산업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진 곳에서 융합으로 피는 꽃이 바로 빅 킬러 콘텐츠이다.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하는 빅 킬러 콘텐츠는 우리의 배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성장 한계에 처한 한국 콘텐츠산업이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고 블루오션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빅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융합형 인재 교육과 융·복합 콘텐츠 기업 육성까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영토가 콘텐츠를 통해 끊임없이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아빠의 무관심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올해 수능이 끝나면서 고2 딸을 둔 필자는 자연스레 수험생 아빠가 되었다. 아내는 벌써 주변에 앞으로는 적어도 1년간 각종 모임과 온갖 의무에서 열외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닌다. 평소 딸에게 아빠는 '고교생 아빠'로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미 할 일을 다했다고 칭찬받아 왔으니, 필자는 그냥 초지일관 무관심을 유지하면 될 터이다.

속없이 수험제도에 관한 아내와 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는 된통 당하기 일쑤다.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필자의 학창시절에는 군사문화 잔재 속에 성적으로 학생들의 줄을 세우고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러한 풍토가 잘못되었다는 인식 아래 정권마다 교육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그 결과물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형의 머리만 아파졌다.

물론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외워 좋은 대학을 간다는 과거의 발상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참모습일 터이다.

어찌 됐건 극심한 취업난 속에 어차피 졸업생의 취업이 어려우니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이 다소나마 무의미해졌다.

대신에 일선 고등학교에 대한 줄세우기가 나타났다. 소위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학에 얼마나 학생들을 많이 입학시키느냐가 서열이 되고 있다.

요즘은 입시제도상 영어 단어 하나, 수학공식 하나 더 외운 소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선발된다.

그런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이라는 주관적 요소는 소위 출신 학교에서 얼마나 학내 동아리나 문화활동, 봉사활동, 대회 수상 실적 등 스펙을 잘 갖추느냐로 평가됨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 속에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인성과 예절을 갖추도록 동기 부여하는 소위 '꼰대 스타일' 선생님보다 각종 행사나 교내 경시 대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많은 상을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학교의 질이 학생의 성적보다는 선생님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평가되는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 선생님은 학생들의 본보기로서 성적과 예절을 모두 잡고 스펙마저 갖추도록 지도한다. 문제는 수시 입시의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학생기록부를 충실하게 만들어준 학교에 칭찬을, 쓸 내용조차 없이 부실하게 하는 학교에 탈락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간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고로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 성장한다. 잘못과 시행착오를 통해 꾸준히 배우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다.

그런데 요즘 학생기록부는 중학교 시절부터 특정 학과를 위한 각종 활동을 채우도록 강요한다. 게다가 수능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하니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통한 배움이 아닌 완전무결한 인간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필자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첫 수업이 지금도 기억난다. 지도교수께서 공부는 학생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진짜라며 우선은 고교생이던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평생 자신의 재산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자신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다니 그저 아빠는 무관심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기 고

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해야

이 영 석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무등산은 21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자, 북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3번째로 탐방객이 많이 찾는 명산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의 탐방객 분포를 보면 전체 탐방객 수의 약 90%가 광주시 쪽으로 집중됨에 따라 교통 혼잡과 불법무질서 행위가 발생하고 정상부 훼손 등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탐방문화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형 공원관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무등산 자락의 문화·예술계와 함께 무등산권문화협의회를 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특히, 기존 정상정복형 수직산행에 치중되던 탐방문화를 저지대 수평탐방으로 바꾸고, 건강에 무리가 가는 패스트(Fast) 탐방에서 슬로우(Slow) 탐방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국립공원 인근 저지대에 자연,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원관리 정책의 변화는 즐길 거리가 없어 정상으로만 향하던 탐방객들의 발길을 산자락에 머물게 함으로써 특정 계절과 탐방코스로 집중되던 탐방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무등산국립공원에 방문하면 자연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예술이 결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탐방객들이 지갑을 자연스럽게 열 것이다. 즉, 국립공원도 건강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호남 고속철 완전개통,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빛고을 광주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으로 높였다. 무등산 인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국립공원 10호 명품마을인 평촌마을 조성을 통해 도시 근처에서도 쉽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만 해도 빛고을 광주가 국립공원을 품에 안고 있는 녹색환경 도시로서의 청정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무등산권문화협의회는 지난 10월 '2015 무등울림-자연 속 문화산책'이라는 행사를 추진하여 자연 속에서 우리 전통 가락에 흥을 느끼며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산책할 수 있는 축제를 선보였다.

또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 미술기법을 채택하여 국립공원에 접목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15 환경미술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전은 미래형 공원관리기법으로 시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다. 인근 미술관에서 운영해오던 환경미술제가 올해부터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옮겨와 무등산 곳곳에 설치되어 탐방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보전에 대한 자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국립공원 내부 프로그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토끼등 일원에서 저지대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밴드'를 결합하여 산행 전 혈압, 혈당을 체크한 후, 저지대 탐방코스를 천천히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고 산행 후에는 거리, 걸음 수, 칼로리 등의 산행 전, 후 자료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력을 고려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개념 트레킹 기법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상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산자락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우리 기관은 선진 탐방문화를 정착시켜 미래세대들에게는 온전한 자연자원을 물려주고, 기성세대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社 說

상생 발전 위한 아름다운 영호남 예산 동맹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민간 중심의 교류인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이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양 지역 시장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 시장과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주 국회 본관에서 만나 '광주-대구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양 시장은 발표문에서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상대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두 도시 간 협력 사업인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사업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양 시도가 발표문을 채택한 다음날, 김관용 경북 도지사는 담양으로 달려와 이낙연 전남 지사를 만났다. 이들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뒤 동해안권 철도 개설과, 목포-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부설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서로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키로 했으며 두 지역 현안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회에서 함께 예산을 얻어 내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지역 갈등의 대표적 도시로 불렸던 광주와 대구 그리고 전남과 경북이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동맹'까지 만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더군다나 윤 시장이 말한 대로 앞으로 서로 상대 지역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만든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중앙 정부가 양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 예산'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적극 지원으로 화답하는 일이다.

노약자 후불 교통카드 상용화 적극 나서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노인 전용 후불 교통카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만 명이 넘는 카드 사용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도입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2년 전부터 23만여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후불 교통카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카드에 대상자 식별 정보를 입력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후불 교통카드는 편리하지만 도입을 위한 기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전담팀을 꾸리고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 등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금융기관들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노인과 유공자·장애인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지하철 1회용 우대권이 회수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후불카드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03년 광주 지하철 개통 후 23만여 개의 우대권이 회수되지 않아 제작 단가(1400원)를 고려했을 때 3억 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사용할 수 없는 우대권을 다시 쓰려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후불카드가 정착됐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후불카드 사업에는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구축비 4억 원과 카드 제작비 11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광주시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사례가 없다며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사는 사업성이 부족할 것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교통카드는 대표적인 생활복지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카드 제작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 구축비 일부라도 보조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사들도 노약자 편의를 위한 사회 공헌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

無 等 鼓

돈과 IQ, 수명

세상이 아무리 불평등해도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작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인간에게 최소한의 평등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최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씁쓸하다. 서울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으면 기대수명'도 짧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이 82.82세로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긴 반면 전남은 80.24세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시 거주자의 기대수명은 84.77세로 가장 높았으나 해남군은 78.67세로 6년이나 짧았다. '죽음 앞에 평등'이라는 불변의 진리도 의료 발달로 인해 특혜가 주어지는 부자들에게는 살짝 비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미국 하버드·프린스턴대 공동 연구진이 2년 전에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내놓은 연구 결과도 흥미롭다. '경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면 문제 봉착 시, 올바로 판단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소득 대부분을 사탕수수 수확에 의존하는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 전후 4개월 차를 두고 IQ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수확이 끝나 주머니가 넉넉했을 때 IQ가 9~10포인트 높게 나왔다.

미국에선 실험 대상에게 각자의 경제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뒤에 테스트를 진행했다. "당신 차가 고장 났다. 자비로 고치겠느냐, 돈을 빌리겠느냐? 아니면 수리를 미루겠느냐?"라고 물었다. 차 수리비가 150달러라고 했을 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테스트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리비가 1500달러나 된다고 하자 저소득자의 IQ가 13포인트나 낮게 나왔다. 결국 돈 앞에 판단력이 무너지거나 올바른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궁핍은 사람의 존엄성을 앗아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나아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며 수명마저 단축시킨다.

이를 생각한다면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